

【논 문】

## ‘간도일본총영사관 전시관’의 기억과 기념

최혜린\*

### ┃ 차례 ┃

- I. 들어가며-기억, 집단기억, 기념
- II. ‘간도일본총영사관 전시관’ 설립 배경
- III. 기억·기념의 장소-연변 조선족자치주와 총영사관전시관
- IV. 고통의 기억과 민족정체성
- V. 마치며

### 국문초록

이 글은 기억과 정체성이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구성체이고, 현재의 맥락에 의해 기억이 매우 선별적으로 조작, 각인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 동북지역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2015년 10월에 개관한 ‘간도일본총영사관 전시관’을 소재로, 총영사관전시관의 설립 과정을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을 통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강화라는 정치적 측면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추진으로 인한 고속철도의 개통과 관광산업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측면, 조선족자치주 지역 공동체의 움직임 3가지 측면으로 고찰했다.

근대국가는 특정한 과거를 선별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의 공유를 통해 국민을 통합, 국가의 정통성과 국민의 일체감을 확립해 간다. 이때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 기념이라는 행위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데, ‘간도일본총영사관’은 국가가 기억을 가능한 한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한 ‘장소’로 선택되었으며, ‘전시관’이라는 기념행위는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에 호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장치로 동원된다. 국가가 집단기억을 통해 민족적

\* 연변대 과학기술학원.

정체성과 통합을 추구할 때 흔히 역사적으로 경험한 고통에 주목하는데, 고통의 공유만큼 집단의 연대와 단합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전시관의 전시를 통해, 일제침략이라는 고난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다는 기억의 공유가 집단간, 민족간의 입장 차이나 대립을 봉합하여 덮어버리고 ‘중국인’으로서의 연대감, 일체감을 만들어내고, ‘중화민족’으로서의 단일한 민족정체성을 탄생시킨다.

고통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기념, 애국주의 교육을 통한 중국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강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가의 의해 쓰여진 역사와, 실생활의 장(場)인 지역공동체의 기억과의 사이에는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적이지 않은 복잡한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상기해 본다. 단일한 국가정체성에 회귀되지 않는, 국가로부터 강요된 정체성과 귀속의식에 대한 균열의 가능성을 연변조선족자치주라는 지역공동체에 조심스럽게 풀어본다.

주제어: 간도일본총영사관 전시관, 기억, 집단기억, 기념, 역사, 민족정체성

## I. 들어가며-기억, 집단기억, 기념

이 글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역사는 곧 기억의 역사이고 또한 해석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事實은 史實로서 기록되어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지만, 그에 대한 해석에 따라 史實이 事實로서 왜곡되는 경우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된다.<sup>1)</sup> 근대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해석 역시 한·중·일 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중국은 ‘만주국’의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偽滿洲國’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은 ‘만주국’이 일본의 괴뢰정부였다는 데에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나, 적어도 행정체제나 제도에 있어서는 독립국가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 ‘만주국’ 수립 이전의 중국 동북지역은 일제 침략에 의해 사실상의 ‘식민지배’를 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엄연히 청(淸)과 중화민국의 관할지역이었기 때문에 ‘준(準)식민지’ 혹은 ‘반(半)식민지’

1) 최봉룡, 2005, 「기억과 해석의 의미: ‘만주국’과 조선족」, 『만주연구』 2, 97-98쪽.

상태였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일각에서는 ‘만주국’은 ‘독립국’이었고 ‘민족 협화’라는 일종의 다문화주의 이론에 입각한 근대화의 실험장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모든 개인과 사회는 ‘기억’을 안고 있다. 어떠한 개인이나 사회도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우리가 현재 기억하고 있는 것이 곧 ‘사실’이고,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여기곤 한다. 실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기억이라는 행위 사이에 시간의 간극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기억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단절은 사라지고 과거가 곧바로 현재화하는 것이다.<sup>2)</sup> 그러나 기억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저장이지 아니다. 기억은 기억하는 주체의 현재적 관점이나 관심에 맞춰 과거를 재현하고 재구성하는 행위이고, 과거를 표상하는 하나의 양식이다. 기억은 셀 수 없이 많은 흘러간 시간 중에 현재의 맥락에서 특정한 사건을 선택하여 상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개인의 기억은 온전히 개인적인 것은 아니다.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私的)이라 여겨지는 기억도 사회적 환경과 무관할 수 없다.<sup>3)</sup> 개인의 기억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그 형성과 해석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지만, 한 개인의 생애 가운데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 중에, 실제 그 개인이 직접 겪고 체험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 역사적 사건이 개개인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만, 그 대부분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 서적과 문헌, 대중매체, 기념물 등을 통해 알게 된, 간접적인 경험이자 차용된 이미지일 뿐이다.

대부분의 공동체는 과거를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

2) 안병직, 2008,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한국사회의 집단기억』, 『역사학보』 197, 200쪽.

3) 일찍이 기억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모리스 알박스는 가장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고도 그 원천이 사회적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고 했다(M. 알브악스, 小關藤一郎 譯, 1989, 『集合的記憶』, 行路社, 1-44쪽).

는다. 동일한 과거의 회상은 그들이 시작부터 같은 운명공동체였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과거를 공유하기 위해 공동체는 동일한 사건을 같은 의미로 기억해야 한다.<sup>4)</sup> 모리스 알박스는 이러한 공동체의 기억을 ‘집단기억<sup>5)</sup>’으로 강조했다. 집단기억은 엄밀한 의미의 기억이라기 보다 일종의 합의, 즉 과거에 대한 공동체 내의 합의된 이야기라고 보아야 한다.<sup>6)</sup> 한편, 특정의 사건이나 인물에 사회적 합의에 가까운 수준의 평가가 내려지거나 그런 수준의 의미가 부여된 채 기억되고 있음을 뜻할 때 ‘공공기억(public memory)’<sup>7)</sup>이라 하는데, 공공기억은 자기와는 다른, 때로 대립하는 개별 기억이나 집단 기억을 다양한 레벨의 헤게모니를 통해, 때로는 동원·이용·찬탈하고, 때로는 배제·억압하며 구축된다.<sup>8)</sup>

근대국가 성립 이후, 국가는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공통된 기억, 즉 집단 기억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정통성과 국민의 일체감을 확립해 갔다. 에르네스트 르낭은 ‘기억의 공유’와 ‘현재의 동의’에 의해 국가가 뒷받침되고 있고, 공유된 과거의 기억이야말로 바로 국가를 국가답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sup>9)</sup> 집단기억이란 집단적 정체성의 토대이고, 집단기억은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집단의 정체성과 연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의 산물인 것이다.<sup>10)</sup>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 근대국가가 주목한 것이 바로 ‘역사’ 만

- 
- 4) 한진수, 2002, 『경합하는 역사: 사회적 기억과 차이의 정치학』, 『한국문화인류학』 35(2), 69쪽.  
 5) 필자는 모리스 알박스의 저서를 일본어 번역본으로 읽었는데, 일본어 번역본에는 ‘집합적 기억(集合的記憶)’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영어의 ‘collective memory’에 해당하는 이 용어를 ‘집단기억’으로 사용한다. 모리스 알박스의 일본어 번역본 외에도 김영범(1998, 『집합기억의 사회적 지평과 동학』,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collective memory’를 ‘집합기억’이라 칭하고 있다.  
 6) Susan Sontag, 2003,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New York; 전진성, 2009, 『트라우마의 귀환』, 전진성 외 15인 편, 『기억과 전쟁—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휴머니스트, 23쪽에서 재인용.  
 7) 김영범, 1998, 위의 책, 168쪽.  
 8) Bodnar, John, 1992, *Remaking America: Public Memory, Commemoration, and Patriot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Jersey; 小關隆, 1999, 『コメモレイションの文化史のために』, 阿部安成 외 7인 편, 『記憶のかたち—コメモレイションの文化史』, 柏書房, 8쪽에서 재인용.  
 9) 小關隆은 1882년의 강연 ‘민족(nation)이란 무엇인가’를 언급하며 에르네스트 르낭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小關隆, 1999, 위의 책, 10쪽).  
 10) 안병직, 2008, 위의 논문, 202쪽.

들기이다. 과거의 있는 그대로의 역사가 아닌, 국가에 의해 쓰여진 ‘역사’는 국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다. 역사서술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역사(national history)’라는 집단기억을 통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개인 역시도 이와 같은 ‘역사’에 자신의 감정과 체험을 종속시킴으로 국가의 일원, 즉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 할 수 있게 된다.

역사도 과거에 대한 표상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역시 사회적 기억을 가공한 상상적 창작물에 불과하다.<sup>11)</sup> 가공된 집단 기억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계승해 갈 것인지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인데, 이때 집단기억은 ‘기념(commemoration)’이라는 상징행위를 통해 구현된다. 기념 행위는 국민적 일체감이나 연대감을 연출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한 사회에서 과거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는 행위는 해당 사회의 집단정체성을 형성, 고정시키고 강고히 하는 것을 돕는다.<sup>12)</sup> 특히 전쟁이나 식민지와 같은 역사 사상(事象)에 대한 기념은, 국민국가의 기원과도 포개져서, 근대국가의 중요한 국가통합의 장치이다.<sup>13)</sup> 기념이라는 형식이 가진 유효성은 시대와 함께 변화하지만,<sup>14)</sup> 국가 혹은 국민이 일종의 상상인 한, 그리고 정치권력이 그 상상에 입각하고 있는 한, 국가를 표상하고 국민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의식은 없어지지 않는다. 국가나 국민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고 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요소에 호소할 필요가 있고, 그 의미에서 기념이 담당하고 있는 표상 기능은 큰 역할을 수행한다.<sup>15)</sup>

11) 김영범, 1998, 위의 책, 177쪽.

12) 坂部晶子, 2008, 『『滿洲』經驗の社會學: 植民地の記憶のかたち』, 世界思想社, 190쪽.

13) 坂部晶子, 2008, 위의 책, 137쪽.

14) 坂部晶子は 중국 동북지역의 식민지(坂部는 식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坂部の 저서를 인용할 경우 식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시기에 대한 기념 형식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1940-60년대 중반 열사묘, 1960년대 중반-70년대 만인경(대규모로 학살된 사람들이 문헌 큰 구덩이), 1980년대 이후 박물관 시대로 분석, 과거를 해석함에 있어 기념의 형식이 시대적 특징을 가짐을 밝혔다(坂部晶子, 2008, 위의 책, 137-162쪽).

이 글은 기억과 정체성이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인 구성체이고,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인 특수한 이해관계에 의해 기억이 매우 선별적으로 조작, 각인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 동북지역에서 일제침략의 경험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015년 10월에 개관한 ‘간도일본총영사관 전시관’을 소재로, ‘간도일본총영사관 전시관’의 설립 과정을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을 통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강화라는 정치적 측면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추진으로 인한 고속철도의 개통과 관광산업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측면, 연변 조선족자치주 지역공동체 내의 움직임의 3가지 측면으로 고찰한다. 또한 ‘간도일본총영사관 전시관’의 전시내용을 분석하여 ‘간도일본총영사관 전시관’의 전시를 통해 어떠한 기억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나아가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자치주에서의 역사전시관이라는 ‘기념’ 행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간도일본총영사관 전시관’ 설립 배경

### 1. 애국주의 교육-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강화

1990년대 초 중국은 공산당에 대한 도전과 사회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국주의 교육운동’을 본격적으로 강화했다. 장쩌민(江澤民) 중국 총서기는 1990년 5월 3일, 중국 근대학생운동의 출발점인 5.4 운동 기념사에서 ‘애국주의는 국가의 독립과 인민의 근본이익을 수호하는 것과 연계시켜야 하고, 사회주의와 애국주의는 본질적으로 하나’라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고자 했다.<sup>16)</sup> 이러한 애국주의 교육은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15) 森村敏己, 1999, 『「記憶のかたち」が表象するもの』, 阿部安成 외 7인 편, 『記憶のかたち-コメモレシヨンの文化史』, 柏書房, 226-228쪽.

16) 『비즈한국』, 2017. 4. 13, 『[차이나프리즈] 무차별 사드 보복 이면에 도사린 ‘애국주의’』.

발전하는 추세이다. 2016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애국주의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애국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애국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과정에 애국주의 교육을 원칙으로 하여, 애국주의를 매개로 한 전면적인 교육 및 선전활동이 범국민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애국주의에 관련된 100권의 책, 100편의 영화, 100곡의 노래를 선정하여 교과목 수업과 보충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역사교과서 수정에도 착수하여,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항일 투쟁사를 기존의 8년에서 14년으로 전면 수정키로 했다. 중국은 그 동안 1937년 7월 7일 북경의 교외 노구교(盧溝橋)에서 발생한 ‘7·7 사변’을 시작으로 1945년 8월 일본 항복까지 8년을 항일전쟁 기간으로 봤다. 일본군이 중국군으로부터 사격을 받았다는 구실로 노구교를 점령한 7·7 사변은 항일전쟁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전국 항전’의 기점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이후 항일전쟁이 이보다 6년 앞선 1931년 9월 18일 발생한 ‘9·18 사변(만주사변)’부터 시작된 것으로 수정하고, 중국 교육부는 각급 교육 당국이 ‘8년 항전’을 ‘14년 항전’으로 수정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sup>17)</sup>

이와 더불어 중국은 전국의 주요 유적지를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선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과 교육활동을 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애국주의 교육기지는 중국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중화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한 사회교육의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기지는 353곳으로 청소년에게 ‘중화민족’의 민족정체성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1995년에 1차로 100곳, 2001년에 2차로 100곳, 3차(2005년)는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승리 60주년 그리고 홍군장정승리 70주년을 기념하여 66곳, 4차(2009년)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60주년 기념으로 87곳을 지정하였다. 각종 박물관과 기념관, 열사기념건축물,

17) 『국민일보』, 2017. 1. 12, 『8년 아닌 14년…中 항일 투쟁사 늘리기』.

혁명전쟁 중의 중요전투 기념시설, 문물보호단위, 역사유적과 풍경명승지 등이 애국주의 교육의 중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sup>18)</sup> 학교에서는 애국주의 교육기지 참관을 통해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일반인에게도 애국주의 관광 명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애국주의 교육의 강화, 교과서의 수정과 같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강화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표준 중국어 보급과 일맥상통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중국 정부는 한족의 언어인 한어를 ‘보통화(普通話)’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공용어로 삼아 한어의 공식화와 일상화를 종용해왔다. 소수 민족의 언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왔는데, 최근 소수민족의 언어에 대한 보호정책을 철회했다. 이는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화를 없애는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 통합적 공동체에 효율적으로 소속되게 하는 ‘온정주의’적 배려라고 말해진다.<sup>19)</sup> 중국 교육부는 ‘국가 언어문자 보급공정 실시방안’을 마련해 2020년까지 전국의 보통화 보급을 평균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였다. 중국 정부는 “중국은 다민족, 다언어 인구 대국으로 언어문자의 통용성을 강화해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배양에 유리하며, 문화적 국가적 동질성을 증진해야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는 데 유리하다”고 강조하며 ‘보통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sup>20)</sup>

포스트식민 국가에서는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이름 아래 민족주의에 기대어 이른바 단일한 ‘공적 기억’ 혹은 ‘공식 기억’을 만들어냄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하게 나타난다.<sup>21)</sup> 실제 중국은 56개의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지만 ‘중화민족<sup>22)</sup>’이라는 새로운 용

18) 오일환·김준혁, 2015, 『중국 아편전쟁박물관의 전시콘텐츠와 역할』, 『인문콘텐츠』 38, 304쪽.

19) 김광역, 2005, 『종족(Ethnicity)의 현대적 발명과 실천』, 김광역 외 10인 편, 『종족과 민족—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43쪽.

20) 『연합뉴스』, 2017. 4. 3, 『中, 소수민족에 표준어 확대… “2020년까지 보급률 80% 늘리겠다”』.

21) 안숙영, 2014, 『젠더와 국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의 건립과정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4(2), 49-50쪽.

22) 중화민족이란 ‘현재 중국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한족 및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 강역 내에 살아왔던 모든 민족집단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이다(윤휘탁, 2003, 『현대 중국의 변강·민족인식과 『동북공정』』, 『역사비평』 65, 185쪽).

어를 만들어 단일한 민족공동체의 창출을 꾀하고 있다. 중국 내의 여러 민족을 체질적 특징, 언어, 역사, 문화전통,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인식 등에 의한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족(族)이라는 하위개념의 단어를 붙여 분류, 한족(漢族), 조선족(朝鮮族), 만족(滿族), 장족(藏族) 등의 명칭을 만들고, 한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을 소수민족이라 칭하고 있다.<sup>23)</sup>

한편, 중국의 항일전쟁기념관 및 일본의 침략을 폭로하는 기념관은 약 100여 개소이며, 비교적 큰 기념관은 50여 개로 전국 각 성시에 분포되어 있다. 2011년 5월에 길림성(吉林省) 정부가 제4차 성급 애국주의 교육기지 명단을 발표했는데, 68개의 성급 애국주의 교육기지 중, 9개가 전국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이다.<sup>24)</sup> 중국에서 기념관과 박물관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시기능 뿐 아니라 사회교육의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국난을 극복한 충성과 승리의 상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쟁관련 추모시설을 관광자원화 하고 민족적 애국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sup>25)</sup> 이러한 기념관은 일제의 침략이라는 경험을 ‘집단지역’으로 국가의 ‘역사’로 공유시킴으로 집단정체성을 강화해간다. 이는 각 민족과 민족 사이, 또 민족 내부의 불평등과 수탈을 무마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 2. ‘일대일로’와 관광산업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신실크로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

23) 김광억, 2005, 위의 책, 24쪽.

24) 2011년 성급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공표된 곳은 동북사범대학 자연박물관 및 길림성 자연박물관, 유수시 소향전시관(榆樹市小鄉展覽館), 길림성 제1중학 연혁사전시관, 서란시 노흑구 참사유적지(舒蘭市老黑溝慘案遺址), 장고봉사건전쟁터전시관(張鼓峰事件戰地展覽館), 쌍요시정가둔(雙遼市鄭家屯)박물관, 집안압록강국경철로대교(集安鴨綠江國境鐵路大橋), 침화일본군제7비행단유적지(侵華日本軍第七飛行團遺址), 진뢰현(鎮賚縣)박물관, 전관현곽이라는(前郭縣郭爾羅斯)박물관, 위만황제부의행궁(僞滿皇帝溥儀行宮) 등이다(김정현, 2011, 「근대 중국 동북지역 한인 이주와 항일투쟁의 기억·기념」, 『만주연구』 12, 238쪽).

25) 오일환·김준혁, 2015, 위의 논문, 292쪽.

서 처음 제시한 전략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一帶),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뜻하는 말이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60여 개 국가를 통합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때 중국과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적 거점은 신강(新疆)자치구, 동남아로 나가기 위한 창구는 운남(雲南)성, 극동 진출을 위해서는 동북3성, 내륙 개발을 위해서는 서안(西安), 또 중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로의 거점은 복건(福建)성으로 이들 거점지역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이다.

2015년 9월 20일은 많은 길림 사람들이 잊지 못할 날이었다.<sup>26)</sup> 2015년 9월 20일 장춘(長春)과 혼춘(琿春)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장춘 고속철도’)가 개통됐다. 이 고속철도는 장춘-연길(延吉)-혼춘을 주축으로, 심양(沈陽)-하얼빈(哈爾濱)을 두 날개 삼아, 북경(北京)-천진(天津)-하북(河北)까지 이어져있다. 중앙 및 지방 각급 매체들은 장춘-연길-혼춘 도시간의 철로 개통에 대해, ‘고속철도 연변관광업 ‘황금시대’ 진입 촉진’<sup>27)</sup>, ‘연변 ‘고속철도 시대’로 진입’<sup>28)</sup>, ‘고속철도 연변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다’<sup>29)</sup>, ‘고속철 개통, 연변 관광산업에 새 도약 마련’<sup>30)</sup>, ‘고속철도의 개통 연변의 대외교류에 조력’<sup>31)</sup> 등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장춘철로의 개통으로 주내의 혼춘, 도문(圖們), 연길, 안도(安圖), 돈화(敦化) 등 지역과 성도(省都)인 장춘과의 왕래 시간이 2시간 좌우로 단축되었으며 심양, 하얼빈까지의 거리도 4시간대로 앞당겨졌다.

장춘 고속철도의 개통은 길림성 특히 연변자치주정부에 많은 기대를 안겨 주고 있다. 이 철도는 중국 동북지구의 주요 철도로서 길림성 일대일로 전략을 촉진하고, 두만강구역 합작개발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다<sup>32)</sup>. 장춘 고속철도가 연변지역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 주발전 및

26) 『中華鐵道網』, 2015. 10. 2, 『高鐵打開延邊歷史新篇章』.

27) 『延邊網』, 2016. 8. 25, 『高鐵推動延邊旅遊業進入“黃金時代”』.

28) 『吉林日報』, 2015. 10. 28, 『延邊進入“高鐵時代”』.

29) 『中華鐵道網』, 2015. 10. 2, 위의 기사.

30) 『연변일보』, 2015. 9. 28, 『고속철 개통, 연변 관광산업에 새 도약 마련』.

31) 『연변일보』, 2015. 9. 24, 『고속철도의 개통 연변의 대외교류에 조력』.

개혁위원회 부주임 리경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33)</sup> 고속철도의 개통은 출행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원, 화물, 정보, 자금의 유동을 형성시켜 연변주의 산업조정에 중요한 버팀목을 제공하고, 소형(小型), 미형(微型) 경제와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추진역할을 할 것이며, 관광산업을 선두로 한 연변경제의 전환, 승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국제·국내 무역을 증가시키는 거대한 추진 작용을 함과 동시에 물류를 보관하는 통상구 경제의 발전에 훌륭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고속철도 개통이 지역사회와 경제에 가져다 주는 영향 중에 가장 두드러진 부문은, 바로 관광산업 부문이다. 위의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춘 고속철도가 연변관광산업 발전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고속철도 개통 직후 맞이한 국경절 연휴기간에 연변을 찾은 국내관광객이 급증했다. 2015년 10월 1일-7일까지 연길서역(延吉西驛)에서만 총 18.8만 명, 일평균 2.7만 명을 발송했으며, 여객운수 총수입은 1556만 4000위안이고, 국경절 기간 연변을 관광하러 온 관광객은 16.2만 명에 달했다.<sup>34)</sup> 또한 연길시의 상가, 특산물, 관광상품 상점에는 외지에서 온 손님이 매우 많았고, 음식점에서는 손님들이 차례를 기다리다 못해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한 의류매장은 보통 휴일 때 보다 손님이 2배정도 늘었다고 한다. 연변의 민속음식, 특산물, 조선족 특색의 관광상품이 외지관광객들의 각광을 받았고, 국경절기간에 연변지역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호텔에 숙박하기 어렵고, 고속철도표를 구매하기 어려우며, 시장 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못한 등 추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매체는 전하고 있다.<sup>35)</sup>

관광산업은 그 생산액이 2015년 현재 연변주 GDP의 18%를 차지한다<sup>36)</sup>.

32) 『中華鐵道網』, 2015. 10. 2, 위의 기사.

33) 『연변일보』, 2015. 9. 24, 위의 기사.

34) 『연변일보』, 2015. 10. 10, 「국경절기간 고속철 연길서역 러객 18.8만 명 발송」.

35) 『연변일보』, 2015. 10. 8, 「고속철도 개통으로 국경절연휴기간 관광객 급증」.

36) 『연변일보』, 2015. 9. 24, 위의 기사. 2008년 연변주의 GDP 총생산액은 379.6위안이고, 관광 총수입은 46억 위안으로 연변지역 총생산의 12.1%를 차지한다(정희숙, 2009, 「중국조

연변주는 관광산업을 주(州)경제의 중요한 기둥산업<sup>37)</sup>으로 보고, 2012년부터 전 주(州) 기간성 산업에 편입하여 다방면에서 관광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변지역의 관광산업 개발의 열기를 장훈 고속철도의 개통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면에는 중국의 관광산업 정책과 해당 산업에 대한 장려가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1992년 관광산업을 제3차 산업 중의 중점산업임을 천명하였고, 제9차 5개년 계획과 2010년 장기발전 목표강령(2010年遠景目標綱要)에서는 관광산업을 제3차 산업 중 적극 발전 추진하는 1순위 산업으로 지정하였다. 2001년에는 국무원에서 열린 전국관광 발전사업회의에서 관광산업의 가속발전을 위한 ‘관광업발전 가속화에 대한 지침(關於加快旅游業發展的通知)’을 기본적 합의로 도출했다. 이상과 같은 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은 중국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전국 22개 성, 자치구, 직할 시 등 각 지방정부에서도 관광산업을 해당지역 경제발전의 기둥산업, 견인산업, 중점산업, 선도산업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70%이상의 성 및 관광도시에서는 WTO가입에 따른 관광시장의 대외개방 방침에 따라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sup>38)</sup>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는 ‘연변관광발전총체 계획(2006년-2020년)’을 2007년 6월에 발표했다. 또한 2007년 7월 13일-15일 제1회 창의형관광문화국제포럼을 개최하고, 2008 제13회 중국북방관광교역회(6월 28일-29일)를 개최했다. 북방관광교역회는 북경, 천진, 산둥(山東), 산서(山西), 하남(河南), 허북, 내몽골(內蒙古), 요녕(遼寧), 길림, 흑룡강(黑龍江) 등 10개성(시, 구) 관광국과 관광협회가 연합으로 발기하여 정부가 공동주최하는 관광경제 교류활동으로, 연변주는 2007년 7월 8일 치열한 경쟁 끝에 개최권을 따내어 연길에서 개최할 수 있었다. 이 행사는 연변을 세계에 알릴 수

선족문화자원과 관광문화산업 기획—연변조선족자치주를 사례로, 『제외한인연구』 20, 163쪽.

37) 정희숙, 2009, 위의 논문, 160쪽; 『연변일보』, 2015. 9. 24, 위의 기사.

38) 중국의 관광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정기은, 2003, 『중국 관광산업의 환경변화 및 발전 추세』, 『문화관광연구』 5(1) 참조.

있는 중요한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연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관광축제였다<sup>39)</sup>. 관광교역회는 연변사회의 기대에 부응했다. 400여건의 관광합작협약이 이루어졌고, 협의 액수만 1억여 원에 이르렀다. 연길관광업도 호황을 맞아 연길시는 2008년 상반기 총 22만 6천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하여 관광 총수입 8.7억원을 올렸다.<sup>40)</sup>

또한 연변주는 8개현시 전부에 고속도로를 개통했다. ‘장혼 고속도로’가 동쪽으로 훈춘까지, 남쪽으로 장춘과 사평(四平)고속도로를 연결시키고, 하얼빈, 대련항(大連港)과 영구항(營口港)까지 직접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南北)고속도로가 철도교통의 대동맥으로 형성되었다.<sup>41)</sup> 주관광국에 따르면 22개 중점관광대상 개발을 신속히 추진 중으로, 그 중 후속 건설 대상이 12곳, 새로 건설하는 대상이 10곳으로 총투자는 11억 위안에 달한다.<sup>42)</sup> 또한 다각적인 관광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돈화 룡정산(六鼎山), 안명호(安明湖), 안도 백두산 등 관광 풍경구를 중심으로 고속철도로 쉽게 이용, 다닐 수 있는 일일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주말 여행이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43)</sup> 주관광부 부국장 장옥진은, “고속열차에 몸을 싣고 행복 찾아, 기쁨 찾아 연변으로”를 주제로 대중매체와 인터넷매체를 통해 전방위적 선전을 하고 있다<sup>44)</sup>고 했다. 연변주는 성내관광객과 국내관광객 더 나아가 해외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39) 연길에서 개최된 제13회 중국북방관광교역회에 관해서는 임영상, 2008a, 『연변조선족의 문화중심 용정과 ‘문화루트’ 개발』, 『인문콘텐츠』 13과 임영상, 2008b, 『연변의 관광문화와 용정, 용정문화콘텐츠』, 『韓民族共同體』 16 참조.

40) 임영상, 2008a, 위의 논문, 217쪽.

41) 『吉林日報』, 2015. 10. 28, 위의 기사.

42) 『연변일보』, 2016. 5. 18, 『연변, 고속철에 국제선까지…관광업 “호황”』.

43) 『연변일보』, 2015. 9. 28, 위의 기사.

44) 『연변일보』, 2015. 9. 24, 위의 기사.

### Ⅲ. 기억·기념의 장소—연변 조선족자치주와

#### 총영사관전시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연변지역을 방문하는 중국인 국내관광객이 증가하긴 했지만, 사실 연변지역을 방문하는 주 관광객은 한국인으로, 1992년 한중수교가 맺어진 이후 많은 한국인이 과거의 역사와 기억을 찾아 연변지역을 방문했다. 따라서 연변지역의 관광자원의 개발에 있어서도 국내관광보다는 한국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국제관광이 더욱 강조되었고, 중국 국내의 주류 문화와 구분되는 이국적 풍물의 강조 보다는 한국인과의 역사적, 문화적 연계성, 민족 상징 등이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관광산업이 전개되었다.<sup>45)</sup>

옛 만주지역인 연변지역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항일운동의 중심지로 기억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용정은 조선민족 항일운동의 핵심 아이콘이자 ‘조선족’의 대표 도시<sup>46)</sup>로 알려져 있다. 1919년의 3.13만세 운동의 현장, ‘저항시인’ 윤동주의 생가<sup>47)</sup>와 대성학교(현 용정중학교), 비암산의 일송정, 많은 항

45) 문옥표, 2010, 『기억과 상상의 현장: 중국을 찾는 한국인 민족역사관광』,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16(1), 9쪽. 문옥표는 이러한 한국인의 관광을 ‘민족역사관광(national history tourism)’으로 정의하고 있다.

46) 100여 년 전 조선에서 선조들이 건너왔을 때 용정은 간도의 중심도시였고, 많은 조선인들이 용정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1926년 말의 통계(진광하·박용일 편저, 2000, 『세월속의 龍井』, 연변인민출판사, 2쪽)에 의하면 용정 인구는 3312호 15448명인데, 그 중 조선족인구는 2343호 11378명이고, 1935년에는 용정 인구 5155호 24783명 중 조선족인구는 3775호 18653명으로 용정 총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당시 연변의 정치중심지이며 총인구수가 용정과 비슷한 국자거(局子街)의 조선족 인구 36%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중국 조선족 전체의 39.1%에 상당한 75만 정도가 거주하며 이는 자치주 전체 인구의 39.5%에 해당한다. 자치주 내의 조선족 집거지는 용정시(65.8%), 연길시(60.4%), 화룡(和龍)시(57.3%), 도문시(56.4%), 훈춘시(50.4%)로 현재도 용정시에 조선족 인구비율이 가장 높다(문옥표, 2010, 위의 논문, 15쪽). 임영상은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성립되고 그 수도인 연길에 연변대학과 연변일보, 연변TV 등 민족대학과 민족언론이 자리잡았으나, 연변특색의 ‘문화’ 중심은 여전히 용정이며, 용정은 연변조선족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보고(寶庫)라고 소개하고 있다(임영상, 2008a, 위의 논문, 214-219쪽).

47) 용정시는 2012년 이후 총 350만 위안의 예산을 투입해 명동촌 내 윤동주 생가를 복원·

일애국지사들을 배출해 낸 명동학교 등은 ‘용정=항일’이라는 공식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한다.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민족 독립을 위해 조국을 떠나 추운 만주벌판에서 항일 운동을 펼쳤던 선조들을 떠올리며, 민족의 고난의 역사와 껴이지 않았던 선조들의 애국심에 가슴 뭉클함을 느끼는 것이다.

한편 ‘간도일본총영사관 전시관(이하 총영사관전시관)’의 개관을 주최한 용정시 역시 항일 투쟁 역사를 부각시켜 역사탐방 중심지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용정시 정부는 지역의 항일 역사자원을 활용, 확충하고 역사시설을 건립·보수해 연간 7-8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거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sup>48)</sup>. 2008년 7월 용정시는 ‘내 고향사랑’ 1일 관광코스를 만들었는데<sup>49)</sup>, 비압산의 일송정, 룡정지명기원지 우물(용드레우물), 민속박물관, 대성중학교혁명투쟁관, 운동주 생가를 함께 묶은 ‘민족민속문화관광’ 코스와, 1928년 연변의 첫 중국공산당 당지부인 룡정촌지부탄생센터, 3.13반일 의사릉, 일본침략자의 거금 15만원 탈취유적지, 연변초대주장 주덕해(朱德海) 동지의 옛집, 일본간도영사관 지하감옥 등을 한데 연결한 ‘홍색관광’<sup>50)</sup> 코스 등을 만들었다. 코스명과 관광지역을 보면, 용정시가 중국의 민족주의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한국이라는 외부세계에 그들이 속한 국가를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수민족은 지배집단과의 관계에서 그들만의 특별한 재능과 역할을 통하여 특혜를 독점하고 재생산하여 특권적인 지위를 향유할 수도 있지만<sup>51)</sup>, 또 한편으로는 지배집단으로부터 민족정체성을 의심받아 경계와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필자가 만난 연변대학교 A교수와의 개인면담자료(2016년 12월)에서도 용정

확장했다. 상급 지방정부인 연변자치주와 협의해 운동주 생가를 ‘국가 3A급 관광지’로 지정받아 주요 방문지로 홍보하고 있다.

48) 『연합뉴스』, 2015. 9. 8, 「中연변 룡정, ‘항일역사’ 부각시켜 韓관광객에 ‘손짓’.

49) 임영상, 2008a, 위의 논문, 218쪽.

50) 홍색관광이란 중국의 중요혁명지역을 여행하는 것으로, 중요혁명지역의 12개 중점 홍색관광지구와 30개의 홍색관광 주요노선이 있다(오일환·김준혁, 2015, 위의 논문, 303쪽).

51) 김광억, 2005, 위의 책, 65쪽.

시의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A교수는 2009년 6월에 연변자치정부의 요청에 의해 연변의 문화자원개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sup>52)</sup>, 또 2015년 용정시가 주최한 관광객 수용 대책 좌담회에 참가했다고 한다. 이 좌담회는 앞서 언급했듯이 고속철도 개통 직후 국경절에 밀려들어온 관광객을 수용할 관광시설, 숙박업소, 음식점 등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향후 대책에 관한 좌담회였는데, 연변대학 교수를 비롯해 용정시장, 용정시서기 및 각처의 장들이 다 참여한 좌담회였다. 이 좌담회에서는 용정지역을 역사관광지로서의 특색을 살릴 것과 한낙연(韓樂然) 기념관 설립, 명동지역 개발, 충영사관전시관의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용정시는 역사탐방객들에게 일본제국주의 침략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2015년 초부터 용정 시내 옛 간도일본총영사관 내 역사박물관을 설계·시공했으며 관광안내판을 세우고 인근 도로를 보수했다<sup>53)</sup>. 충영사관전시관은 2015년 10월 개관했다.

충영사관전시관 설립의 배경에는 첫째 기념관, 전시관 등의 시설이 중국의 민족주의 교육의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둘째 중국의 관광자원 개발 열풍, 셋째 한중간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조선족자치주의 움직임 이 세가지가 있지만, 사실 충영사관전시관 개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원래 충영사관 관내에는 충영사관 본관 건물뿐만 아니라, 충영사, 부영사의 관저와 함께 충영사관에 배치

52) 의견서에는 연변문화자원개발을 위한 의견이 5가지 제시되어 있다. 첫째, 역사, 민속, 문화 등의 전문가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연변에 개발 가능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고 너무 과대평가나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 조선족 역사 유적지 외에도 만족, 발해 역사 유적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전주 각현 각시의 관광자원의 특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중복적이거나 맹목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것. 셋째, 주정부가 중점적으로 연변주만의 특색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 지원하여 관광시장을 점점 키워야 하는데, 연변 문화의 특색은 다원문화이지만, 조선족 문화가 가장 대표적이기에 조선족 문화를 반영한 관광자원을 개발, 지원해야 한다. 넷째, 민족문화의 왜곡으로 인한 천박함과 통속화를 피해야 한다. 다섯째, 연변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사상해방의 진일보와 함께, 민족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발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조선족은 경계민족으로, 연변 관광자원과 조선족문화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뿔레야 뿔 수 없는 것이므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53) 『연합뉴스』, 2015. 9. 8, 위의 기사.

되어 있던 경찰관들의 사택도 마련되어 있었다. 건물이 튼튼하고 좋았기 때문에 전후에도 건물을 허물거나 훼손하는 일 없이 용정시 정부 청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총영사관은 중국 내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된 영사관 중 하나로 ‘길림성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어 있었다.<sup>54)</sup> 그런데 최근 용정시 정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차량이 많아지자, 용정시에서는 경찰관 사택을 2채 빼고 다 허물어서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총영사관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상징하는 유물이자 길림성급 문물인데 이를 용정시가 마음대로 철거했다 하여, 역사연구자들과 3.13 기념사업회 및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이 매우 거세었고, 당시 용정시장과 용정시 관계자들의 역사의식이 문제화되었다. 급기야 길림성 문물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내려왔고, 중요한 역사 문물을 훼손한 책임을 당시 시장에게 물어, 시장을 해임하겠다고 하는 등의 난리가 한바탕 있었다고 한다. 이런 연고로 당시 시장과 관계자들이 총영사관전시관을 서둘러 준비하게 되었다고 한다.<sup>55)</sup>

용정시의 항일 투쟁 역사 관광지의 조성 과 총영사관전시관 설립,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기념 행위는 국민적 일체감이나 연대감을 연출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기념물을 설립하는 주체는 대개 국가 또는 권력을 가진 집단이다. 이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원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인물, 사건, 날짜 등을 지속적으로 기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념물은 사회구성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치, 사회, 문화적 생명을 획득하며,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할 때 지속될 수 있는 토양을 갖게 된다. 기념물은 각종 행사와 의례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정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며, 이데올로기와 사상의 발신지로도 이용된다는 점에서 권위의 공간이라고 할

54) 중국 동북 지역에서 유적은, 국가·성(省)·시(市) 각각의 레벨로 문화유적으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길림성 중점문물보호단위’ 목록을 보면, 성 레벨의 중요보호 문화유적은 103개소이고, 그 중 근대에 속한 것이 28개소로 그 대부분이 식민지기·항일전쟁기의 유적이다(坂部晶子, 2008, 위의 책, 140쪽).

55) 연변대학교 A교수 면담자료(2016년 12월), 연변대학교 B교수 면담 자료(2017년 3월).

수 있다.<sup>56)</sup>

한편 집단기억이 집단적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기억의 의무’는 사실상 집단 기억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민족이 역사적으로 겪은 고통과 희생이라면 ‘기억의 의무’는 적어도 집단 내부에서는 도의적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sup>57)</sup>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총영사관 건물을 허물어 버린 용정시장과 관계자들은 민족의 ‘기억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도의적 가치를 저버린 사람들로 비난 받아 마땅한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고, 뒤늦게야 ‘기억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또 책임을 면하기 위해 총영사관전시관 설립에 적극적으로 착수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간도일본총영사관’(이하 총영사관)의 전신은 ‘조선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이하 간도파출소)이다. 1907년 8월 일본은 ‘간도에 있는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간도파출소를 설치, 1909년에 맺어진 ‘간도협약’ 의거하여 동년 11월 총영사관을 세우고,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활동과 항일 운동을 통제하는 기구로 삼았다. 총영사관은 1922년 11월 27일 밤 느닷없는 화재로 전소, 일본은 서둘러 20여 만 엔을 들여 3년 동안 총영사관 청사를 재건하여 1926년에 준공되었다. 관내 면적은 4만 2944㎡이고, 주요 청사 건축면적은 2397㎡, 부속건물 면적은 4300㎡이다. 최근까지 총영사관 본관은 용정시 인민정부사무청사로 사용되었고, 건물 뒤편 2층 건물인 총영사 및 부영사 관저는 용정시공안국 부속건물과 용정시 라디오 TV방송국으로 사용되었다.<sup>58)</sup> 현재는 본관을 총영사관전시관으로, 뒤편 건물을 사용하던 공안국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공안국이 있던 자리를 용정시 정부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총영사관 본관 뒤편에는 지하실로 내

56) 정호기, 2009, 『전쟁상흔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시선의 전환과 공간의 변화: 한국에서의 전쟁기념물을 중심으로』, 전진성 외 15인 편, 『기억과 전쟁—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휴머니스트, 501쪽.

57) 안병직, 2008, 위의 논문, 207쪽.

58) 『연변일보』, 2015. 6. 9, 『“죄악의 소굴”-간도일본총영사관』.

려가는 문이 있는데, 이곳은 반일지사들을 취조했던 감옥이었다. 이 지하 고문실은 용정시정부가 지난 1990년초 항일전쟁승리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3만위안을 들여 ‘용정 혁명역사 전시관’으로 꾸며놨었는데<sup>59)</sup>, 그림과 종이인형으로 고문상황을 재현해 놓았다고 한다.

총영사관전시관의 소재지는 길림성 용정시 육도하로(六道河路) 869-1호이고, 총영사관은 2010년에 ‘청소년애국주의교육기지’로 지정되었다. 총영사관전시관의 주최는 용정시 인민정부이고 주관은 용정시 관광국이다. 기획·디자인 및 시공은 연변B.O환경예술미디어유한회사가, 멀티미디어기술은 B.O성호(상해)과학기술유한회사가 담당했다.

2015년 11월 3일 오전, 세계반과소전쟁승리 70주년 기념 및 ‘간도일본총영사관전시관 개관식’이 용정에서 거행되었다. 주정협 부주석 황룡석, 연변주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주임 장룡준(張龍俊), 용정시 상임위원, 상무부서기 소경량(蘇慶良)이 총영사관전시관 현판식 행사에 참석했다.<sup>60)</sup> 총영사관 전시관은 3단계로 나뉘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날 개관한 전시관은 1단계 공사로 총 투자액이 400만위안이다. 향후 건설하게 될 2,3단계 공사에는 연변인민의 반침략 투쟁사, 테마광장+밀실탈출, 총영사관저 및 경찰속소정경 복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고, 3년 내에 완성할 계획<sup>61)</sup>이라 한다. 한 매체에서는 전시관 입관료는 40위안이고, 용정시 시민 신분증을 가지면 공짜로 참관 가능한데, 진귀한 역사 자료와 실물 보호를 고려하여, 참관인수를 규제, 매번 들어가는 참관인수는 15명 내로 규제한다<sup>62)</sup>고 전한다.

총영사관전시관 개관과 입관료에 관련된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자면, 필자는 총영사관전시관을 네 번 방문하였으나, 그 중 세 번만 입장할 수 있었다. 처음 참관한 것은 2016년 3월 13일로 ‘3.13 반일운동<sup>63)</sup>’ 기념행사가 끝

59) 『연변일보』, 2015. 6. 9, 위의 기사.

60) 『延邊信息港』, 2015. 11. 5, 『記者帶您尋訪輪龍井“間島日本總領事館”揭開歷史塵封』; 『연변일보』, 2015. 11. 4, 『용정 “일본간도총영사관” 전시관 개관』.

61) “간도일본총영사관” 전시관 팸플릿(이하 팸플릿) 참조.

62) 『延邊信息港』, 2015. 11. 5, 위의 기사.

63) 한국에서는 ‘3.13 만세운동’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3.13 반일

난 후에 3.13 반일운동 기념사업회 회장이신 리광평 선생님께서 실제 1919년 3월13일 당시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군중들이 모여있던 장소와 이동했던 길을 따라가며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 후 총영사관전시관도 안내해 주셨다. 당시 총영사관전시관은 상시 참관이 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문이 잠겨있었는데 특별히 기념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잠시 문을 열어주었다. 겨울인데(연변 지역은 4월까지 겨울이라 할 수 있다) 난방시설이 고장나서 휴관중이라 했다. 두 번째 방문은 2016년 8월 10일로 일본에서 방문한 몇 분의 교수들과 갔었다. 이 때는 정식개관 중이었고 입장료 40원을 내고 참관했고 팜플렛도 받았다. 세 번째 방문은 2016년 12월 27일이었는데 이때는 문이 닫혀 있었다. 총영사관전시관 앞쪽의 사무실로 찾아가 용정시 직원에게 문의해 보았는데,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고 다른 직원이 설명하기를 당분간 휴관한다고 언제 재개하게 될지 정확한 시기는 모른다고 했었다. 네 번째 방문은 2017년 4월 20일이다. 이때까지도 휴관 중이었기 때문에 지인인 총영사관전시관 관계자를 통해 사전 연락을 해서 특별히 입관할 수 있었다. 원래는 휴관 중이었기 때문에 입장료는 내지 않았다. 당시 안내해 주었던 용정시 직원에게 휴관의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전시관에 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사람이 계속 지키고 있기가 좀 그렇다고 얼버무렸고, 현재는 중국 타지역의 지방 정부사람들이 방문하면 오픈하여 안내한다고 했다.

총영사관전시관의 잠정 휴관의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고, 언제 정식으로 다시 개관할 지도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아직 3단계 공사까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인 상태에서의 개관이 용정시 입장에서는 체면이 안 선다는 것, 생각보다 참관객이 많지 않은 것(실제 한국 관광객이 몰려오는 여름철에 정식 개관을 할지 어떨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사드(THAAD)배치 문제로 악화된 한중 관계를 그 원인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한중 관계의 전개에 따라 조선족의 역할과 위상이 재정의 되고,

---

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항일은 일본의 침략이나 지배에 저항하여 싸운다는 의미이고, 반일은 일본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사상이나 신조, 운동,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가리킨다. 총영사관전시관에서는 주로 '반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조선족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sup>64)</sup> 필자는 총영사관 전시관 개관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조선족관계자와 총영사관 전시관 개관 및 준비과정에 대한 정식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면담 한달 전부터 약속을 잡았고 그 관계자도 아주 흔쾌히 면담에 응하기로 했으나 돌연 면담 당일 아침에 면담 취소 연락이 왔다. 취소 이유는 지금(2016년 12월 21일) 한중 관계가 좋지 않으므로, 한국사람이 중국의 전시관에 대해 연구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인과 얽힌 몇가지 불미스러운 사건과 조선족이 피해를 당한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필자와 꽤 친분이 있는 분이었는데 한국인과의 접촉 자체를 매우 조심스러워 하고 경계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총영사관 전시관이 관광자원으로서 ‘소비’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참관자들로 하여금 일제침략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그 기억을 공유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총영사관 전시관이라는 장소는 ‘기억의 거소(sites of memory)<sup>65)</sup>’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기억의 거소’란 기억이 결정화하고 분비되는 장소로, 국가는 기억을 가능한 한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동원하는데, 공간·장소는 집단기억의 주요한 매체 중 하나이다. 총영사관 전시관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존재했던 총영사관과 그 건물, 나아가 영사관의 역사와 역할에 초점을 맞춘 전시라는 점에서 쉽게 참관자들의 역사적 상상력과 기억을 자극한다. 총영사관 전시관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지배라는 기억이 재구성되고 복원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는 총영사관 전시관의 전시가 어떠한 기억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살펴 보겠다.

64) 한중 관계의 전개에 따른 중국동북 지역의 역사와 장소를 둘러싼 갈등과 중국의 조선족에 대한 통제와 단속은 문옥표, 2010, 위의 논문 참조.

65) 김영범, 1998, 위의 책, 176쪽.

#### IV. 고통의 기억과 민족정체성

총영사관전시관은 그 전신인 간도파출소가 세워진 1907년부터 1937년 일본이 ‘치외법권’ 철폐를 선언하고 총영사관을 철수한 기간까지 ‘일본이 연변지역을 침입하여 저지른 악행과 그에 맞서는 연변인민들의 투쟁내용을 전시66)’하였다.

먼저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면 정면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 좌우에 보초를 서고 있는 영사관경찰관의 모습을 밀랍인형으로 재현하여, 정말 당시의 총영사관을 방문한 듯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첫번째 전시실에는, 간도를 발판 삼아 만주를 점령하고 전 중국 침략을 획책하는 일본 지도자들의 모습이 3D영상으로 꼭면스크린에 비춰지고, 화면 하단에 대화 내용(일본어)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자막으로 나온다.



<사진1>총영사관전시관 전경

<사진2>전시관 1층, 지하평면도

<사진3>우는 아이 유화

전시관은 크게 12개의 주제를 담은 전시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는 주제별 전시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① ‘연변을 침략한 책임지’.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가 세워진 경위를 일본의 오래 계획된 침략 야심과 ‘간도문제’조작으로 서술하고, 임시파출소의 간부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② ‘연변을 침점(侵占)한 마굴-총령사관’. 총영사관이 영사실, 경리실, 무선전실, 법정, 경찰서, 감옥 등의 부서와 영사분관을 설치하여 침략정책을 실시, 연변인민

66) 팸플릿 참조.

의 반일투쟁을 진압하였으며, 대량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총영사관에 부임했던 총영사들의 사진과 이름 및 총영사관 성원들의 단체 사진이 있다. 또한 총영사관 설립에 관한 ‘소가죽 한 장의 이야기’라는 일화를 가늘게 오린 소가죽과 함께 소개하고<sup>67)</sup>, 영사관 내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총영사의 모습을 밀랍인형으로 재현, 한 쪽에는 당시 총영사관에서 사용하던 시계, 선풍기, 카메라 등의 물품이 전시되어 있다. ③ ‘연변을 침점한 마굴-경찰서’. 연변지역 일본영사관 경찰기구 배치도와 경찰들이 사용하던 여러 종류의 권총, 엄지수갑, 수갑 등의 물품과, 경찰관들의 사진, 1919년 3.13반일 운동 진압과 관계자 검거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④ ‘야만적인 파썬통치(정치, 문화, 교육)’. 일본이 정치적으로는 가혹한 식민통치를 실시했고, 문화적으로는 사회여론을 단단히 통제하였으며, 교육에서는 황민화교육을 감행하면서 연변전역에 전방위적이고 야만적인 파썬통치를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정보수집과 항일운동 진압에 관한 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학생들이 강제로 일본어 교육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교실풍경-일본인 교사의 일본어를 따라하는 모형(음향과 함께)-이 설치되어 있다. 칠판에 일본어를 적고 있는 어린 여학생들, 키미가요를 부르는 여학생, 군사훈련중, 근로봉사중인 학생들, 차렷 자세로 운동장에 정렬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진 등을 볼 수 있다. ⑤ ‘군사토벌’. 3.13 반일운동 후 연변지역의 반일 운동이 무장항일투쟁의 단계로 진입하자 일본군이 파견되어 군사대토벌을 진행. 일본군이 연변에 진군하고 있는 모습, 훈련과 작전 수행, 관련자 검거, 살상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 당시 군인들이 착용했던 군복, 군모, 가방, 수통, 망원경 등의 현물도 전시되어 있다. ⑥ 영상실에서는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의 전투장면과, 일본군이 항일무장세력을 대토벌

67) ‘소가죽 한 장 이야기’의 내용은, 일본영사가 청나라 정부에게 영사관을 지어야 하는데 소가죽 한 장만큼의 땅만 달라고 부탁한다. 청나라 정부에서는 의아히 생각하면서도 그 정도쯤이야 하고 허가했는데, 나중에 보니 일본이 용정에 으리으리한 총영사관을 지었다. 일본은 소가죽을 실오라기처럼 가늘게 오려서 그 늘어놓은 길이만큼의 땅을 총영사관 부지로 사용했던 것이다. 전시관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 일제의 간악함을 전달하고자 한다.

하는 장면을 실제 사진과 함께 재연 영화화하여 상영하고 있다. ⑦ 탐욕스러운 경제 약탈. 금융기구를 설치하여 거대한 자본을 독점하고, 철도를 건설하여 목재, 로두구(老頭溝) 탄광의 석탄, 천보산(天宝山) 은광의 은 등의 자원을 ‘미친듯이 약탈’했다고 설명. 금융기관, 철도부설, 벌목 중인 인부, 일본으로 자원을 수송하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⑧ ‘잔인무도한 참사’. ‘해란강대혈안(海蘭江大血案)’을 주제로 한 유화에는 큰 연자땃돌에 사람을 으깨고, 작두로 목을 자르고, 가마솥에 사람을 넣어 끓이고, 불을 지르는 등의 상상도 못할 잔혹한 학살의 모습과 그 모습을 지켜보며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조선인의 모습(한복차림)이 그려져 있다(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려진 것이라 한다). 그 옆에는 가마솥에 끓여져 팔다리만 빠져 나와있는 모습이 밀랍으로 재현되어 있고, 한켠에 당시의 수갑과 고문기구, 형틀이 전시되어 있다. ⑨ “‘인간지옥’-로투구만인갱(老頭溝万人坑)”. 연길현 로두구 북원보산(北元宝山)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로투구탄광에서 1만 여명의 광부들이 숨졌다고 서술, 무참히 죽어간 광부들의 유골이 탄광내부 곳곳에 무더기로 널려있는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⑩ ‘성세호대한 “3.13” 반일운동’. 김약연을 비롯해 3.13반일운동을 주도했던 지도자 5명의 초상부조와 함께 약력이 소개되어 있다. ⑪ ‘일본침략죄행의 역사적증인-피해자들의 분노에 찬 공소’. 리광평 선생님이 조선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990년대부터 수집하고 기록한 사진과 녹음 및 비디오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TV화면에서는 인터뷰 시의 영상이 나오고 있고 화면 앞에 놓여진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면 증언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다(<사진4>). ⑫ 지하고문실. 실제 반일지사들을 취조했던 지하감옥으로, 고문장면을 밀랍인형으로 생생하게 재현해놓았다(<사진5>, <사진6> 참조).



<사진4> 증언자들 사진과 영상



<사진5> 고문상황 재현 전시



<사진6> 고문상황 재현 전시

총영사관전시관의 전시 내용은 전체적으로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고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일본이 얼마나 잔혹하게 연변지역을 통치했는지, 연변인민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전시장 전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규정하듯 전시관 내의 조명도 거의 밤처럼 매우 어둡게 되어 있어 전시물 위에 달린 작은 조명으로 사진이나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사진2>는 어두운 배경에 아이가 울고 있는 그림인데, 첫 번째 전시실 입구 전면에 배치되어 있어 전시관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작품이다. 그 시대의 암흑과 고통이 응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구한 민족이 일제에 의해 참혹한 지배와 고통을 맛보았다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필자는 전시관을 돌아보는 내내 ‘일본인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잔혹한 짓을 저질렀을까’하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전시관을 둘러보는 내내 절로 마음이 숙연해졌고, 참관 후에도 굉장히 무겁고 참담한 기분이 이어졌었다. 2016년 8월에 같이 전시관을 찾았던 일본인 교수는 밤새 악몽에 시달려 잠 못 이루었다고 했다.

총영사관전시관에서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가. 좀 길지만 전시관과 팸플릿에 쓰여져 있는 ‘머리말’의 일부를 소개한다.

“《간도일본총령사관》은 외교기관의 허울을 쓰고 연변과 동북에 대한 침략을 획책한 책원지였으며, 연변인민들의 항일투쟁을 탄압한 죄악의 소굴이었다. 1910년 한일합병이후 조선의 수많은 반일투사들이 연변으로 들어와 반일투쟁고조를 일으켰다. 이에 질겁한 일제는 1920년에 300여 명의 경찰을 증파하여 각지 경찰기구를 강화하는 한편 《경신년대참변》을 조작하여 적수공권인 무고한 조선족들과 반일투사들을 잔인무도하게 학살하고 방화하며 간음하는 천추에 용서 못할 만행을 저질렀다. 일제는 간도총령사관 건물에 지하고문실과 감방을 설치하고 전기취조, 채찍, 짐계, 참대꼬챙이, 고추가루물 등 형구로 항일투사와 군중들에게 잔인무도한 형벌을 감행하였다. 룡정일본총령사관건물 지하고문실에서 피해받은 사람은 무려 4천여 명이나 되었으며...1937년 12월 폐관될때까지 항일지사 및 무고한 백성 2만여 명이 체포되어 박해 내지 살해되었다. 연변각민족인민들은 1919년 3월 13일(“3·13반일운동”)부터 시작하여 1945년 8월 15일 항일투쟁이 승리하기까지 일본제국주의와 판가리싸움을 벌여왔으며 하늘땅을 진감하는 가렬처절한 반항과 투쟁으로 일본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타격을 안겼고 끝내 승리의 서광을 맞아왔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우리는 일제의 하늘에 사무치는 죄행을 폭로하고 장렬하게 희생된 수천수만의 항일투사들과 각민족 인민들의 넋을 기리면서 후세사람들에게 역사를 거울로 삼아 평화를 사랑하고 애국주의정신을 고양하며 오늘을 영위하고 내일을 개척해 갈 것을 재삼 약속하는 바이다.”

위의 글은 총영사관에 대한 평가, 잔인무도한 일제의 만행, 투쟁으로 인한 승리, 전시관 설립 목적의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총영사관을 ‘동북에 대한 침략을 획책한 책원지, 연변인민들의 항일투쟁을 탄압한 죄악의 소굴’이라 평가하고 있듯이, 전시관의 전시는 시종일관 일본의 악랄한 탄압과 그에 따른 피해를 거칠게 폭로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인에 대한 일본 당국의 기본정책은 탄압과 회유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조선인들의 항일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통제하는 한편, 교육시설 확충, 사립학교 보조, 의료기관 확충, 빈민구호·구조, 금융기관 설치 등의 ‘사회적 사업’을 통한 조선인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조선인민회나 협화회 같은 친일 단체를 육성하여 조선인들을 이간하고 통치정책에 이용하였다. 총영사관전

시관의 전시는 이와 같은 총영사관의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풍부하게 전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머리말에 치열한 항일투쟁으로 일제에게 큰 타격을 안겼고 끝내 승리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전시관의 전시를 통해서도 승리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3.13 반일운동에 참가한 민족지도자의 사진이나, 봉오동, 청산리 전투 등 무장항일투쟁 장면의 재연영화가 상영되고 있지만 곧 이어 관련 인물의 검거나 진압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승리보다는 ‘패배’의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된다. 총영사관전시관은 왜 피해와 고통의 역사를 오로지 기억하려는 것일까? 집단기억은 역사적 교훈을 내세워 스스로를 정당화하는데, 총영사관전시관과 같이 일제의 잔혹함에 대한 재현으로 과거의 고통을 재각인시키는 기념행위를 통해 과연 어떠한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국가가 집단 기억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과 통합을 추구할 때 흔히 역사적으로 경험한 민족의 영광과 아울러 고통에 주목한다고 한다. 이는 집단적으로 경험한 고통만큼 집단의 연대와 단합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sup>68)</sup>. 이러한 고통에의 주목을, 라카프라는 현대문화가 트라우마에서 일상성을 초극하는 숭고함을 찾으려는 경향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개인이나 집단은 트라우마를 통해 스스로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 하는데, 이 때 트라우마의 고통은 놀랍게도 유포리아적 자기도취로 전화하여 자기 정체성의 원천, 즉 ‘기원을 이루는 트라우마들’이 된다는 것이다<sup>69)</sup>. 역사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기념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역사의 트라우마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중국 전체에 희생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는 타 지역과의 평화적인 연대에 있어, 그 행보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 전역에 퍼져있는 격앙

68) 안병직, 2008, 위의 논문, 202쪽.

69) Dominick LaCapra, 1994, *Representing the Holocaust: History, Theory, Trauma*, Ithaca: 전진성, 2009, 위의 책 35쪽에서 재인용.

된 반일감정은 역사적 고통의 기억과 기념행위, 애국주의 교육을 통해 확산,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sup>70)</sup>.

한편 머리글의 말미에 전시의 목적이 드러나 있는데, 첫째 일제의 죄행을 폭로하고, 둘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마지막으로 후대에게 역사적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관이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 국민국가인 ‘기념’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 충영사관전시관에서 기억을 재현하는 양식 중의 하나인 전시라는 기념행위를 통해 기념하려고 한 것은 ‘나쁜 과거로부터의 단절’이다<sup>71)</sup>. ‘역사를 거울로 삼아 평화를 사랑하고 애국주의정신을 고양하며 오늘을 영위하고 내일을 개척’해 가는 것은 일제침략 같은 ‘나쁜 과거’를 청산하고 애국주의의 강화로 단결된 집단정체성을 형성하여, 밝은 미래, 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중국의 의지가 담겨있다.

필자가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팸플릿에 쓰여진 ‘우리’라는 표현이다. 여기서 ‘우리’란 누구를 뜻할까? 기억은 개인과 집단의 수만큼 다양하고 다원적이며 동시에 특수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가 서술한 역사에서 기억은 단일하고 보편적이며, 개개인은 ‘우리’라는 한 덩어리로 묶여진다. 국가가 재현의 주체로 등장하는 순간 다양한 개인의 기억들은 국가의 기억으로 동화되거나 국가의 기억에서 다시금 배제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sup>72)</sup>. 충영사관전시관에서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 받은 것은 ‘연변지역’에

70) 이러한 기억, 기념과 애국주의 교육을 통한 중국 젊은이들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우경화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영토문제, 역사청산문제로 인한 반일감정의 고양은 물론이고,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혐한감정과 보복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혐한 시위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가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 2016년 8월 몇 명의 일본 교수들이 연변지역을 방문하여 함께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도문을 방문했을 때, 우리 일행이 외국인인 것을 눈치 챈 젊은 중국 공안인(10대 후반-20대 초반 정도) 다가와, 신분증 조사와 함께 함부로 카메라의 사진을 확인, 삭제하고, 여권을 사진 찍어갔다. 특히 일본 교수들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너희 일본 사람들이 왜 이곳에 있느냐, 너희는 중국에 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일본사람으로서 남경대학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질문을 하고 보내주지 않아서 매우 곤혹스럽고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71) 小關隆, 1999, 위의 책, 14쪽.

사는 ‘연변인민’으로 뭉뚱그려서 표현된다. 당시 ‘연변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참사의 희생자가 될 수 있었음을 암시하고, 일제 침략에 의한 고통은 실제 희생자인 ‘그들’의 고통이 아닌 전체 중국의 ‘우리’의 고통으로 승화된다. 전시관의 일부인 ‘성세호대한 “3.13” 반일운동’과 ‘역사증인전시관’에 전시된 인물들이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연변인민’으로서 개개인의 약력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총영사관전시관의 전시를 통해 중국은, 식민지 조선인들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일으켰던 항일운동이 ‘중국’을 위해 ‘중국인민’으로서 벌인 항일운동으로 묘사, ‘기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표상하고 있다. 당시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조선인과 중국인과의 미묘한 민족 갈등과 마찰은 은폐된 채, 고난의 역사를 함께 공유했다는 ‘기억’이 집단간, 민족간의 차이와 대립을 봉합하고 있다. 이렇게 재구성된 기억이 ‘중국인’으로서의 연대감, 일체감을 만들어내고, ‘중화민족’으로의 하나된 민족정체성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총영사관전시관 역시 ‘국사(national history)’로서의 역사적 틀 안에서 표상되고 있음은 명확하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전시관의 전시에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공연히 드러낼 수 없고, ‘조선족’ 또는 ‘조선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민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한복을 입은 여학생의 사진, ‘해란강대혈안’ 유화 속의 살해된 피해자와 대기하는 사람들의 한복 차림, 지하고문실에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앉아있는 여인의 모형<sup>73)</sup>. 또한 팸플릿의 머리말에 ‘1910년 한일합병이후 조선의 수많은 반일투사들이 연변으로 들어와 반일투쟁고조를 일으켰다’고 서술되어 있는 문장. 실제 총영사관전시관을 안내해 주셨던 분들은 ‘우리 조선족들이’ 일제에 의해 심한 고통을 당했고, 그 탄압에 항거하여 항일운

72) 정선태, 2012, 『기념관에 갇힌 장소와 기억—4·3평화기념관과 기억의 정치학』, 『남도 문화연구』 22, 232쪽.

73)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표현함에 있어 전통복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을 벌였다고, 조선족의 고난과 항일운동의 주체성을 강조한다(물론 참관객의 국적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겠지만). 연변 조선족 사회가 중국인으로서, 조선족 자치주라는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중국이라는 국가에 협조하고 충성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 주류 민족인 한족과는 다른 독자적인 정체성과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얼핏 보면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중화민족’이라는 정체성 속에 존재하는 여러 기억의 결들, 또는 미묘한 어긋남, 혹은 균열의 틈새를 만드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 V. 마치며

역사가 계속 살아서 계승되는 것은 ‘기억’을 통해서이다. 기억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이며, 따라서 역사는 기억을 통해서 재생된다. 한편, 집단기억은 ‘기념’이라는 상징 행위와 ‘역사적 증거’ 두 가지를 통해 구현되는 과거표상이라고 재정의 할 수 있다<sup>74)</sup>. 시각화된 과거는 역사교육으로 전달된 지식으로 전제로 선택되고, 문자로 표기된 역사는 과거를 표상하는 ‘형태’에 의해 보다 생생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된다. 교육을 통해 형성된 역사 인식과, 시각에 작용하면서 ‘형태’가 비추어 내는 과거의 표상, 양자는 상호 보완하면서 의도된 방향으로 권력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이끌어 간다<sup>75)</sup>.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 ‘기념’이라는 행위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데, 기억의 표상인 ‘기념’이 표현하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과거’와의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단절이 존재한다. ‘기억’의 공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국가는 사람들의 정서와 감각적인 요소에 호소하는데, 이때 선택된 특정한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에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고 일종의 사회적 ‘권위’가 부여된다. 간도일본총영사관은 국가가 기억을 가능한 한

74) 김영범, 1998, 위의 책, 183쪽.

75) 森村敏己, 1999, 위의 책, 232-233쪽.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한 ‘장소’로 선택되었으며, ‘전시관’이라는 기념행위는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에 호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장치로 동원됐다. 전시관의 전시를 통해, 일제 침략이라는 고난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다는 기억의 공유가 집단간, 민족간의 입장 차이나 대립을 봉합, 덮어버리고 ‘중국인’으로서의 연대감, 일체감을 만들어내고, ‘중화민족’으로서의 단일한 민족정체성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다.

사실 전시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모두 일관되고 획일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인의 경험과 인식과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감상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정신적 고양을 맞본다는 경험이며, 실은 ‘합의(consensus)의 부재’를 은폐하고 참가자에게 같은 기억을 공유시킨다는 것이다<sup>76)</sup>.

중국 동북지역의 집단기억의 표상이 중국사회의 역사기술의 형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과 같이, 총영사관전시관 역시, ‘국사(national history)’로서의 역사적 틀 안에서 표상되고 있음은 명확하다. 그러나 국가의 역사적 기술과 구체적인 지역사회의 집단기억과의 사이에는 일방향적인 규정성뿐만 아니라, 복잡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이러한 역사기술이 해당 지역의 자기인식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단순한 국가통합의 기능에만 귀속해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집단기억, 국가적 집단기억이 만들어내는 정체성과는 다른 정체성을 만들고 유지하는 장(場)으로서 지역공동체를 떠올릴 수 있다<sup>77)</sup>. 국가와 지역공동체로의 이중의 귀속의식이 갈등을 포함할 경우, 지역공동체는 개인이 ‘국민’으로 회수되는 프로세스에 저항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화라는 것이 단순히 지역적 공동체에서 국민 공동체로의 귀속의식의 이행이나 치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지역적 공동체로의 귀속

76) Kertzer, David I., 1988, *Ritual, Politics, and Power*, Yale University Press; 森村敏己, 1999, 위의 책, 228-229쪽에서 재인용.

77) 단일한 국가정체성에 회귀될 수 없는 지역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해 森村, 1999, 위의 책, 235-241쪽; 坂部, 2008, 앞의 책, 138-139쪽 참조.

의식의 재편과 강화를 동반하면서 국민공동체로의 귀속의식이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가기도 한다.

총영사관전시관은 집단기억을 창출하는 국민국가의 ‘역사를 표상하는 매체’로서의 측면과, 조선족자치주 연변이라는 ‘지역적인 기억의 매체’로서의 측면이 교차되는 장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과의 접촉에 대한 중국당국의 경계와 통제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항일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인과의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 연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변지역의 관광산업. 또한 전시관이라는 공공의 장소에서 드러내 놓고 전시할 수는 없지만, 곳곳에 암시되어 있던 조선민족으로의 정체성, 안내자들의 ‘조선족’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강조를 통해, 국가로부터 강요된 ‘중화민족’으로의 정체성과 귀속의식에 대한 균열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 참고문헌

### 1. 연구문헌

- 김광역, 2005, 『종족(Ethnicity)의 현대적 발명과 실천』, 김광역 외, 『종족과 민족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 김영범, 1998, 『집합기억의 사회사적 지평과 동학』,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정현, 2011, 『근대 중국 동북지역 한인 이주와 항일투쟁의 기억·기념』, 『만주연구』 12
- 森村敏己, 1999, 『「記憶のかたち」が表象するもの』, 阿部安成・小關隆・見市雅俊・光永雅明・森村敏己 編, 『記憶のかたち—コメレクションの文化史』, 柏書房
- 문옥표, 2010, 『기억과 상상의 현장: 중국을 찾는 한국인 민족역사관광』,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16(1)
- 小關隆, 1999, 『「コメレクションの文化史のために」』, 阿部安成・小關隆・見市雅俊・光永雅明・森村敏己 編, 『記憶のかたち—コメレクションの文化史』, 柏書房
- 안병직, 2008,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한국사회의 집단기억』, 『역사학보』 197
- 안숙영, 2014, 『젠더와 국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의 건립과정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4(2)
- 오일환·김준혁, 2015, 『중국 아편전쟁박물관의 전시콘텐츠와 역할』, 『인문콘텐츠』 38
- 윤희탁, 2003, 『현대 중국의 변강·민족인식과 「동북공정」』, 『역사비평』 65
- 임영상, 2008a, 『연변조선족의 문화중심 용정과 ‘문화루트’ 개발』, 『인문콘텐츠』 13
- 임영상, 2008b, 『연변의 관광문화와 용정, 용정문화콘텐츠』, 『韓民族共同體』 16
- 전광하·박용일 편저, 2000, 『세월속의 龍井』, 연변인민출판사
- 전진성, 2009, 『트라우마의 귀환』, 전진성·이재원 엮음, 『기억과 전쟁—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휴머니스트
- 정기은, 2003, 『중국 관광산업의 환경변화 및 발전추세』, 『문화관광연구』 5(1)
- 정선태, 2012, 『기념관에 갇힌 장소와 기억—‘4·3평화기념관’과 기억의 정치학』, 『남도문화연구』 22
- 정호기, 2009, 『전쟁상흔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시선의 전환과 공간의 변화: 한국에서의 전쟁기념물을 중심으로』, 전진성·이재원 엮음, 『기억과 전쟁—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휴머니스트
- 정희숙, 2009, 『중국조선족문화자원과 관광문화산업 기획—연변조선족자치주를 사례로』, 『재외한인연구』 20
- 최봉룡, 2005, 『기억과 해석의 의미: ‘만주국’과 조선족』, 『만주연구』 2
- 坂部晶子, 2008, 『「滿洲」經驗の社會學: 植民地の記憶のかたち』, 世界思想社

한건수, 2002, 『경합하는 역사: 사회적 기억과 차이의 정치학』, 『한국문화인류학』 35(2)  
M. アルヴァックス(Maurice Halbwachs)、小關藤一郎 譯, 1989, 『集合的記憶』, 行路社

## 2. 신문기사

- 『국민일보』, 2017. 1. 12, 『8년 아닌 14년...中 항일 투쟁사 늘리기』,  
(<http://news.km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6769&code=11142200&cp=nv>)
- 『吉林日報』, 2015. 10. 28, 『延邊進入“高鐵時代”』,  
([http://news.xinhuanet.com/local/2015-10/28/c\\_128364706.htm](http://news.xinhuanet.com/local/2015-10/28/c_128364706.htm))
- 『비즈한국』, 2017. 4. 13, 『[차이나프리즘] 무차별 사드 보복 이면에 도사린  
‘애국주의’』,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3097>)
- 『延邊网』, 2016. 8. 25, 『高鐵推動延邊旅遊業進入“黃金時代”』,  
([http://www.hybrb.com/ybrbmobile/show/news\\_show\\_weixin.php?idx=113488](http://www.hybrb.com/ybrbmobile/show/news_show_weixin.php?idx=113488))
- 『延邊信息港』, 2015. 11. 5, 『記者帶您尋訪輪龍井“間島日本總領事館”揭開歷史塵封』,  
(<http://www.yb983.com/news/list/2015-11-03/41536.html>)
- 『연변일보』  
2015. 6. 9, 『“최악의 소굴”-간도일본총령사관』,  
([http://www.iybrb.com/gih\\_vew.aspx?id=3388](http://www.iybrb.com/gih_vew.aspx?id=3388))  
2015. 9. 24, 『고속철도의 개통 연변의 대외교류에 조력』,  
([http://www.iybrb.com/news\\_vew.aspx?id=39891](http://www.iybrb.com/news_vew.aspx?id=39891))  
2015. 9. 28, 『고속철 개통, 연변 관광산업에 새 도약 마련』,  
([http://www.iybrb.com/news\\_vew.aspx?id=40004](http://www.iybrb.com/news_vew.aspx?id=40004))  
2015. 10. 8, 『고속철도 개통으로 국경절련휴기간 관광객 급증』,  
([http://www.iybrb.com/news\\_vew.aspx?id=40122](http://www.iybrb.com/news_vew.aspx?id=40122))  
2015. 10. 10, 『국경절기간 고속철 연결서역 려객 18.8만명 발송』,  
([http://www.iybrb.com/news\\_vew.aspx?id=40177](http://www.iybrb.com/news_vew.aspx?id=40177))  
2015. 11. 4, 『룡정 “일본간도총령사관” 전시관 개관』,  
([http://www.iybrb.com/news\\_vew.aspx?id=40956](http://www.iybrb.com/news_vew.aspx?id=40956))  
2016. 5. 18, 『연변, 고속철에 국제선까지...관광업 “호황”』,  
([http://www.iybrb.com/news\\_vew.aspx?id=46493](http://www.iybrb.com/news_vew.aspx?id=46493))
- 『연합뉴스』  
2015. 9. 8, 『中연변 룽징, ‘항일역사’ 부각시켜 韓관광객에 ‘손짓’』,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8/0200000000AKR20150908086700097.HTML?input=1195m>)  
2017. 4. 3, 『中, 소수민족에 표준어 확대... “2020년까지 보급률 80% 늘리겠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3/0200000000AKR20170403095800089.HTML?input=1195m>)

『中華鐵道网』, 2015. 10. 2, 『高鐵打開延邊歷史新篇章』,  
(<http://www.chnrailway.com/html/20151002/1297469.shtml>)

투고일 : 2017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7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6일

■ Abstract ■

‘Japanese Consulate General in Jian Island Exhibition Hall’,  
Memory and Commemoration

Choi, Hyereen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experiences of Japanese imperialism aggressions in Northeast China with a focus memory and identity as social constructs. Memory is selectively fabricated and imprinted according to social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Japanese Consulate General in Jian Island Exhibition Hall’, which opened in October 2015, as a case study for examining three aspects of such experiences. It explores, first, the political, as embedded within patriotic education and reinforced nationalist ideology. Second, it looks at the economic with the opening of the high-speed railroad, and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t industry as seen through ‘One Belt, One Road’ projects. And third, it considers the experiences of the local community in Korean-Chinese autonomous prefecture. In other words, it investigates the sense of ‘pain’ exhibited and felt within this ethnic group, how it is magnified, and how the sharing of ‘memory’ during times of adversity aid in the “coming to terms” or reconciliation processes that ethnic communities experience that i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a homogenous ‘Chinese’ national ethnic identity.

Key words : Japanese Consulate General in Jian Island Exhibition Hall, memory, collective memory, commemoration, ethnic identity